

중동 오일머니 6000억달러 각축전

2007-08년 걸프6국 프로젝트 6000억달러 ... 삼성·대림·GS 적극적

1970년대 <열사의 땅>으로 바람을 일으켰던 중동이 30년이 지나 다시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는 국내기업과 노동자들이 사막 한가운데 도로와 송유관을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했다면, 최근에는 석유화학제품은 물론 전력, 담수를 비롯해 각종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플랜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동 플랜트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3-4년간 계속된 고유가로 대량의 오일머니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에 의존했지만 원유 자원이 수십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 분명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이 속속 성과를 나타내면서 산업화와 석유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원유 의존성을 최대한 낮추고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력, 담수, 건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또 원유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 같은 다운스트림에도 직접 진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이란·이라크를 포함 걸프연안 8개국에 발주할 건설·석유가스·전력·담수 프로젝트가 2007년과 2008년 모두 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는 현재 17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면서 외국기업의 플랜트 진출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유럽기업을 위주로 일본과 한국기업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2006년 국내기업의 중동 플랜트 수주는 석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모두 90억 달러로 7.4% 증가하면서 전체 국내기업 수주금액의 37.2%를 차지했다.

2007년 들어서도 중동 플랜트 시장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1-2월 전체 플랜트 수주금액 64억8000만달러의 50%를 넘는 35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2006년 사우디의 Metathesis 프로필렌(Propylene) 및 PP(Polypropylene) 건설공사 2건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대림산업은 2월 10억달러에 달하는 사우디의 PC(Polycarbonate)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두산중공업은 3월초 11억4000만달러가 투입되는 Dubai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여기에 GS건설도 중동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함께 패널, 콘크리트 블록, 건축 내외장재, 의료용품, 포장기계 등 중소형 플랜트 수요도 꾸준히 늘어 중소기업들도 진출 기회를 엿보이고 있다.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기업들은 2007년 중동 플랜트 수주금액이 1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8>